

정신지체인의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 현 혜*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박사과정)

김 정 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교수)

최근의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각종 사건(정신지체인의 불임실패 사건 1998; 정신지체여성의 성 매매사건 2003.1.28, 성남일보) 등과 정신지체인의 성 행동 및 성폭력 실태 연구(전용호, 1995; 하숙자, 1998; 조옥, 2000; 강미숙, 2001; 경기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02)를 통해서 정신지체인과 관련된 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성교육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할 교육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성교육의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정신지체 장애인이 그들의 성적권리를 정당하게 조력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성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며,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정신지체 특수학교 2개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전공과 학생 및 복지관에 근무하는 정신지체인 51명을 대상으로 5차에 걸쳐 1회에 80분씩 총 10회 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탄생 I II, 사춘기 I II, 성인 준비기 I II, 성 역할, 성폭력 I II)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성 지식과 성 태도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 내용별(성 지식, 성 태도)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 본 결과 성 지식과 성 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정신지체인에게 올바른 성 지식과 긍정적인 성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교육 프로그램은 정신지체 정도, 성별, 연령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에서 교육 영역별 성교육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신체의 구조 및 기능, 임신과 출산, 사춘기시의 신체·심리·성적변화에 대한 내용 및 대처방법, 성폭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성교육 후 이에 대한 성 지식과 성 태도가 많이 향상됨을 알 수 있으나, 성 역할과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